

귀촌일기-농한기

아침을 열며

박찬규
एको특수가치연구소
이사



올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 눈이 없고 날씨가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가 뚜렷하다. 농촌의 눈과 밭은 추수가 끝나 황량한 느낌이 들지만 겨울 동안 봄을 맞이할 생각으로 농민들은 생각이 깊다. 작년에는 몇 년째 태풍이 없어 농작물 피해가 적었다. 논농사도 풍작을 이루었지만 추수를 앞두고 벼멸구가 창궐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밭농사의 작황도 가을비가 계속 내려 염려스러웠지만 그런대로 평년작을 할 수 있었다. 농촌에서는 기후가 좋고 햇빛이 풍부해야 모든 작물이 잘 여물고 수확량도 많이 난다.

남도의 겨울은 요즘이 가장 한가롭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농한기로 농부에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절기다. 이때를 맞이하여 여행도 다니고 도회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 집에 가기도 한다. 작년에 벼 수확에 정성을 들여 생산한 벼 수매가가 확정되어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는 계절이다. 농한기에는 집집마다 감장하기에 바쁘다. 요즘은 농촌의 대부분 가정에서 메주를 써서 장 담그는 일

을 포기하고 살지만 필자는 매년 일정한 양만큼 메주를 써서 장 담그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 농한기에는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메주쓰는 일도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농촌에서 농한기에 빼 놓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바로 비닐 걷는 작업이다. 밭농사는 풀 때문에 거의 모든 경작에 비닐을 깔고 농사를 짓는다. 수확하는 시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비닐 걷는 작업을 할 수 없어 주로 농한기에 작업한다. 다른 쓰레기와 달리 농사용 폐비닐은 마을마다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집장소를 만들어 놓았다. 모아진 폐비닐은 봄에 수거해가는데 판매 대금이 적지 않아 마을마다 공동기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도시와 달리 해가 바뀌기 전에 특별한 행사를 한다. 바로 마을마다 동계라는 방식을 통해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다. 동계에서 마을의 1년을 결산하고 신년의 사업계획을 세우며 이장을 새로 선출하기도 한다. 요즘은 군 조례를 통하여 마을 이장의 임기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등 이장과 손발을 맞추어 일할 사람은 대부분 동계에서 정하고 있다. 농한기에는 마을회관이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마을마다 대부분의 세대가 노인들이라 회관에 모여 실내놀이를 즐기고 공동취사를 하기도 한다. 중장년들은 파크 골프에 많은 시간을 즐기기도 하

며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부들은 농한기가 없는 시간을 보낸다. 겨울동안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딸기농사를 하는 농부는 농한기가 가장 바쁘다. 12월부터 2월까지 출하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농한기가 없다. 필자도 작년에 풀 때문에 과수원에 깔았던 부직포 위로 풀이 많이 자라서 농한기에 풀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은 농촌마다 노인들의 자연 감소로 빈 집이 많이 생긴다. 지자체마다 빈 집을 수리하여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에 힘을 쏟고 있다. 농촌에 살면서 4계절이 바쁘지만 그래도 겨울 한철의 농한기가 있어 농민들의 생활이 여유롭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농한기에 풀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농한기를 피해서 오는 것을 권한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당장 소득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마다 마을 빈 집을 수리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자체를 통하여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권한다. 농촌의 4계절은 끊임없이 바쁘지만 그나마 겨울 한철이 여유가 있고 조금은 한가롭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은 농한기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社說

안전 위협하는 콘크리트 신속 철거해야

광주·여수공항도 '둔덕형' 위험

제주항공 참사에서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여수공항과 광주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설치돼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8일 '규정에 맞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견고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가 참사를 키우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일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 끝단을 넘어 설치된 2m 높이의 둔덕형 로컬라이저를 들이받아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활주로 중단에 동체 착륙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활주로 끝 251m 지점에 있는 둔덕형 로컬라이저에 충돌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무게가 80여 톤에 이르는 항공기가 시속 200km의 속도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 충돌했을 경우 기체에 가해진 충격의 크기는 엄청났을 것이다.

수평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는 항

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부딪쳐도 충격이 없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공통 규정이기도 하다. 국토부의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도 '활주로 중단안전구역은 부서지기 쉽지 않은 모든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규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비슷하다. 백 번 양보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다고 하더라도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인명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게 맞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구조물과 비슷한 광주와 여수공항 등의 로컬라이저를 최대한 빨리 철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규정을 떠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시설을 이대로 뒤선 안된다. 단편적인 규정 위반 논란을 넘어 규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규정을 대체할 더 안전한 규정이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규정을 이유로 또 다시 비극이 반복 돼선 안된다.

백신접종·마스크 착용 등 독감 대비하길

독감 환자, 2016년 이후 최저

올 겨울 인플루엔자(독감)가 대유행할 조짐이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다. 8일 질병관리청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2024년 52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3주 전인 49주차(7.3명)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치다. 연도별 의심 환자 숫자는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 △2021년 4.8명 △2020년 3.3명 △2019년 49.8명 △2018년 73.3명 △2017년 72.1명 △2016년 86.2명이다.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독감'으로도 불린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이 1000명당 8.6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유행은 그 기준을 8배나 훌쩍 넘긴 수치다. 실제 광주는 지난달 22-28일(2024년 52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07.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3.9명이 많았다. 전남도 같은 기간 환자 1000명당 99.5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5.6명이 많다.

광주·전남이 유독 독감 확산이 큰 것은 저조한 백신 접종 탓으로 분석된다. 독감에 취약한 어린이와 임신부의 접종률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의 경우 전국 평균 접종률은 65.7%인 반면 광주는 65.0%, 전남 60.9% 그쳤고, 임신부 역시 전국 평균 접종률 60.1%보다 광주는 56.1%, 전남은 49.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는 평균을 웃돌았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다. 밀집된 공간을 피하고 다수와 접촉 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욱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게 확산을 막는 길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중국 신화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7일(현지시간)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 시가체 덩르현 장쑤오 마을에서 구조대가 지진 피해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사망자 숫자는 126명으로 늘었고 가옥 약 3600채가 붕괴했다. 주요 도로가 끊기고 영하 18도의 한파가 예보돼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뉴시스

서석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5'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CES 2025'에는 역대 최대인 세계 160개국 450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폴네임에서 알 수 있듯 처음엔 TV, 오디오 및 백색가전 등 전자제품 중심의 전시회로 출발했다.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이후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ICT 제품과 기술이 총집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대 전시회로 발전했다.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기술 등 그야말로 최첨단 ICT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다.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젠슨 황의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출시 예고로 포문을 연 올해 CES의 화두는 단연 AI다. '연결, 해결, 발견, 몰입(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을 주제로, AI가 일상 생활 속에 적용되면서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참가 기업들은 생성형 AI 활용 로봇,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기술 등 최첨단 AI 기술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올해 CES에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51곳도 참가해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기술 역량 경쟁을 벌인다. 지역 기업들은 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기업들로, 저마다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CES에 '광주전문관'과 '전남관'을 운영하고, 지역 기업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CES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어서 큰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K-컬처', 'K-푸드'에 이어 똑똑하게 일상을 바꾸는 AI 혁신기술로 무장한 'K-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받은 것이다. 'K-스타트업'은 다음 아닌 광주·전남 스타트업이 선도하고 있다.

지역 스타트업들은 올해 CES에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스타트업이 이번 CES를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라면서 응원 박수를 보낸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